

# 해양실크로드와 아랍 난파선 항로

## Maritime Silk Road and Route of Arab Shipwreck



# 전시도면 Exhibitio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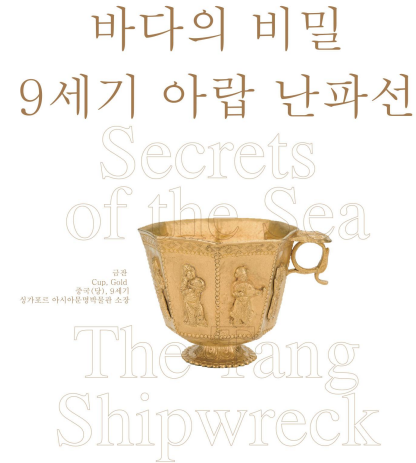


www.seamuse.go.kr | 061.270.200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ACM ASIAN CIVILISATIONS  
 MUSEUM

# 2018 Special Exhibition 한국-싱가포르 국제교류전



2018. 12. 11 - 2019. 3.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Maritime Museum, Special Gallery

# 바다의 비밀, 9세기 아랍 난파선

## Secrets of the Sea, The Tang Shipwreck

국제교류전 「바다의 비밀, 9세기 아랍 난파선」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랍 난파선의 무역품을 소개하는 전시로서, 대한민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싱가포르 국가박물관 아시아문화박물관이 함께 개최합니다.

아랍 난파선은 9세기 경 중국에서 무역품 수 만개를 싣고 서아시아로 항해하던 중 인도네시아 벨리둥섬 해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1998년 난파선의 발견은 20세기 동남아시아 수중고고학 역사상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아랍 무역선은 고대 아시아 지역의 해상교역을 다각도로 밝혀준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9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기나긴 여정에서 바닷속으로 사라진 난파선과 그 최후를 함께 한 선원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칠 년 동안 바다가 품은 아름다운 예술품을 감상하여, 중국-아랍-신라 각 나라가 공유했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품은 싱가포르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쿠틉푸아트갤러리 Khoo Teck Puat Gallery 소장품으로, 쿠틉푸아트 재단 The Estate of Khoo Teck Puat 이 고 고 쿠틉푸아트를 기념하기 위해 기증한 유물들입니다.

Secrets of the Sea: The Tang Shipwreck is a special exhibition introducing the story of the first wreck of an Arabian dhow discovered in Asia. It is co-organiz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NRMCH)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 (ACM) under the National Heritage Board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n 1998, an ancient shipwreck was found off the coast of the Indonesian island of Belitung. Its cargo identified the wreck as an Arab trading vessel dating back to the ninth century. Its cargo consisted of some 67,000 pieces of Chinese ceramics along with non-ceramic items such as a number of lead ingots, silver and gold vessels, bronze mirrors, storage jars filled with spices, and more.

This wrecked dhow delivers to us today a rich story of the Maritime Silk Road, an extensive network of ocean trade that flourished between the Persian Gulf, Indian Ocean, West Asia, Southeast Asia, and China. This exhibition invites audiences to experience this ancient sea route across Asia that prospered 1200 years ago and discover the secrets and splendor of the Chinese trade goods of the time.



# 1 아시아 최초, 아랍 난파선의 발견 The First Wrecked Dhow Found in Asia

1200년 전, 9세기 아랍 무역선 한 척이 동남아시아 자바해Java Sea의 벨리둥섬 해역에서 난파되었다. 벨리둥은 인도네시아의 섬으로, 이 해역은 예로부터 산호초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큰 배들이 항해하기 힘든 곳이었다. 무역선은 해난사고 지점에서 150m 떨어진 바투히탐 Batu Hitam: 검은 바위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난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98년 바닷속에서 해삼을 캐던 잠수사가 중국 도자기를 발견하면서 2년에 걸쳐 수중발굴이 이뤄졌다. 난파된 선체와 무역품들은 바닷속 17m 지점에 고온 모래로 덮인 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아랍 난파선은 벨리둥 난파선 Belitung shipwreck, 당난파선 Tang Shipwreck, 흑석호 黑石宕 嶺으로 불린다.

Twelve centuries ago, an Arabian trade vessel sunk in the waters of the Java off the coast of the small Indonesian island of Belitung. The trade ship is thought to have gone down after striking an offshore reef called Batu Hitam (Black Rock) 150 meters from the wreck site. In 1998, 1200 years after the sinking, a diver hunting sea cucumbers happened to spot a mound of Chinese ceramics. Two excavations were carried out over the next two years. It was fortunate that the ship and its trade goods went down in water only seventeen meters deep but remained in a relatively well-preserved state covered with fine sand. The Belitung shipwreck is also known as the Tang Shipwreck or Heishihao, a Chinese translation of Batu Hitam, meaning black rock.

# 2 9세기, 아랍상인들의 아시아 무역 9th Century, Arab Traders in Asia

벨리둥섬의 난파선은 해상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를 왕래했던 커다란 아랍 무역선이었다. 출발지는 중국 당나라618-907의 국제무역항 광저우廣州였으며, 목적지는 페르시아만의 무역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해 시기는 9세기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826년에 해당하는 <實錄 2年 7月 16日(중국 당나라 경종 2년)> 글자가 새겨진 장식요 도자기에서 확인되었다. 배에는 약 67,000점이나 되는 각종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파손된 것을 포함하면 약 7만점으로 추정된다. 무역품은 대부분은 당나라 도자기이며, 진귀한 금·은 그릇과 은괴, 청동 거울, 유리병, 철기, 동전, 천상 생활용품 등이다.

The wreck off of the coast of Belitung Island was a large 9th-century Arabian merchant vessel that had been plying Asian seas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The 20-meter-long ship is estimated to have been loaded with about 70,000 valuable objects, of which 67,000 remained intact. Ninety-eight percent of the cargo consisted of Chinese ceramics from the Tang Dynasty (618-907), and the remainder included precious gold and silver vessels, silver ingots, bronze mirrors, a glass bottle, lacquerware, coins, goods belonging to members of the crew, and more. The ship most likely departed from the port of Guangzhou headed for its presumed final destination in the Persian Gulf.

# 3 대륙의 끝, 신라에서 만난 해상실크로드 The Sea Route from Silla at the Eastern End of the Continent

신라 천 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개방의 시대였다. 신라는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모방을 넘어 넘어 독창적인 기술로 발전시켰다. 가까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 서아시아, 서역과도 교류하였다. 서역과 남남은 육로인 비단길과 바닷길인 해상실크로드 두 경로를 거쳐 이루어졌고, 멀리 아랍의 사치품까지 수입되었다. 당시 들어온 서아시아 '황금 장신구'는 신라에서 다채로운 금세공기법과 무늬로 꽃을 피웠다. 이 교류에는 신라인과 중국인, 서아시아인들의 문화 취향이 담겨 있다.

Throughout the thousand years of its history, the Silla Kingdom flourished by continuously embracing new elements from other cultures. This openness brought unprecedented diversity and richness to Silla's cultural tradition. The kingdom carried out trade not only with China and Japan, but also with West Asia and the countries bordering on Western China via two different trade routes: the overland Silk Road and the Maritime Silk Road. The ocean trade of Silla was most active during the ninth century in the Yellow Sea and the South Sea. Jang Bogo (787-846) was a central figure who controlled the maritime trade in East Asia in that period. Such exchanges are evidenced both in Silla and Arabic literature.

# 4 1200년 전, 아랍 난파선의 최후 1200 Years Ago, The End of the Arabian Ship

아랍 난파선은 인도네시아 벨리둥섬 해역으로 사라졌다. 이 곳은 해상실크로드의 전통 항로인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벗어나 지절이자 남쪽의 자바해 방향으로 향하는 바닷길이었다. 아랍 상인들은 처음부터 동남아시아 향신료 무역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팔렘방을 비롯한 무역항에서 동남아시아 향신료를 구입하거나 중국 도자기 일부를 판매했는데, 난파선에서 발견된 동남아시아인들의 물품과 향신료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외에도 아랍과 중국의 생활용품과 상거래 물품들도 확인되었다. 이를 사용한 사람들은 무역상인이거나 여행자, 선원이었으며, 무역선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The Arabian dhow was heading toward the Persian Gulf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in Southeast Asia, intending to cross the northern reaches of Indian Ocean along the traditional route of the Maritime Silk Road. However, after crossing the strait it sunk in the waters off the Indonesian island of Belitung. The areas of sea were part of the routes to the Java Sea, which must have been developed for spice trade as evidenced by the spices and other commodities that belonged to Southeast Asians found on the wreck. Everyday goods used by Arab and Chinese people have also been found.

[참고도판] 아랍 무역선 일화 1297년 프랑스 극동아시안



아랍무역선의 <대선화>  
Model of dhow  
장종, 조선시대  
국립해양문화연구원

청와 주전자  
Ewers, Green-glazed celadon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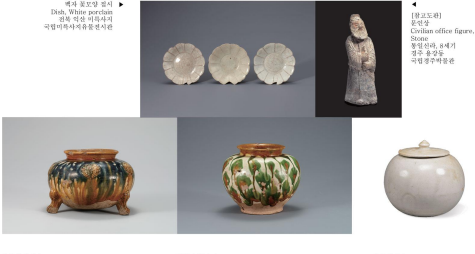
[참고도판] 녹유 주전자  
Blue-green-glazed ceramic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청화백자 나팔잎무늬 접시  
Blue-and-white ceramic dish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백과 향아리  
Large oval jar, White-glazed stoneware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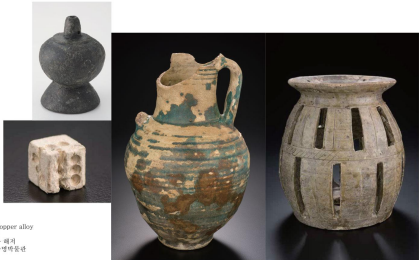
녹유 사파랑의 주전자  
Zhuozi ewer, Green-glazed ceramic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당삼채 향아리  
Jar, Tri-color  
종기(당), 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당삼채 향아리  
Jar, Tri-color  
종기(당), 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백과 향아리  
Jar, White porcelain  
종종, 당  
국립중앙박물관



계울중  
Scale weights, Copper alloy  
종남아시아, 유물상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구사원  
Jin, Stone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당포자  
Amphora, Turquoise-glazed earthenware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

향토  
Incense burner, Green-glazed stoneware  
종기(당),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둥 해역  
장거로트 아시아문화박물관